

조선후기 혁화의 그래픽 콘텐츠 연구

A Study on the Graphic Contents of Hyuk-Wha in the Late Chosun Dynasty

이명구(Lee, Myung Goo)

동아방송대학 미디어디자인학과 교수

남인복(Nam, In Bok)

메트로신문 편집국장

1. 서론

- 1-1 연구배경 및 목적
- 1-2. 연구방법과 범위

2. 혁화의 시대적 변천

- 2-1 혁화의 유래와 연원
- 2-2 혁화의 발전

3. 혁화의 유형

- 3-1 효제문자도 혁화
- 3-2 비백 혁화
- 3-3 화문자 혁화

4. 혁필화

- 4-1 혁화와 혁필화
- 4-2 혁필화의 형성

5. 결론

참고문헌

(要約)

조선 후기인 18세기 전후에는 각종 민화(民話, Min-Wha)들이 민중들의 생활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면서 소재나 기법에서 독특하고 다양한 작품들이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민화 가운데서 특이한 표현 양식 중 하나로 혁화(革畵, Hyuk-Wha)를 들 수 있다.

혁화는 그 기법으로 볼 때, 서예의 표현 양식의 하나로 분류되는 비백서에서 유래를 찾을 수 있는데, 버드나무 껍질이나 갈대류의 줄기를 바르게 펴서 붓 대용품으로 써서 작업한 비백서(飛白書)의 다소 거친 질감과는 시각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혁화의 발전 과정은 민화 전체의 발전 과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도교적인 길상문자 문자도(吉祥文字 文字圖) 및 유교적인 효제문자도(孝悌文字圖)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형식의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문자도 형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그런 까닭에, 문자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와 한자의 뛰어난 조자력(造字力)을 상징적으로 조형화한 혁화는 오늘날 그래픽 분야의 워드 마크(Word Mark)나 브랜드 로고타입(Brand Logotype) 등에 응용되는 픽토그래피(pictography)와도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과거 민중의 집안을 꾸미고 장식하는

용도로 성행했던 혁화는, 오늘날 다양한 장식용품의 등장과 현대화된 주택의 발달로 그 용도는 거의 소멸되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동안 민화의 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고 서예 및 문자도와 더불어 발전해온 혁화가 서구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현시점에 비추어 볼 때, 그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Abstract)

About 18th century in the late Chosun dynasty, various kinds of 'Min-Wha' had played a significant role and had an important meaning in the lives of the people in that period. Therefore, both in material and in technique, so many diversified 'Min-Wha' were mass produced in that time.

Starting from those backgrounds, 'Hyuk-Wha', is considered as one of unique style of expression. Though, 'Hyuk-Wha', in techniques, was originated from 'Bibaekseo' classified as one of the style of expression in Oriental drawing and writing art.

'Hyuk-Wha' shows and expresses visual differentiation from rough 'Bibaekseo', in substance, written by brush made from the skin of a willow tree or the stem of a sort of reeds. 'Hyuk-Wha', in mode, has very close relation to the process of the development of 'Min-Wha'.

Judging from this point of view, 'Hyuk-Wha' has deep relationship to Taosmic character painting of 'Gilsang: an auspicious sign' or Confucian character painting of 'Hyojae: filial piety'. Accordingly, Hyuk-Wha' has been developed to that character painting designed by another type of creative differentiations.

For these reasons, 'Hyuk-Wha' which significantly shapes and contains the meanings of Chinese Character also has been esteemed to have interrelation with

Pictography in application of Word mark or Brand logotype in graphic areas.

'Hyuk-Wha' which was prevalent in use of home decorations for the people existed in the past has been ceased to exist nowadays in use of home decorations by appearance of all sort of decoration articles.

All these days, 'Hyuk-Wha' which was diversified as a part 'Min-Wha' and developed together with oriental drawing and writing art and character painting is to be necessarily relighted. And 'Hyuk-Wha, which is also vigorously in practical application in Western Europe is desirable to be reconsidered.

(Keyword)

Hyuk-Wha, Min-Wha, Pictorial Calligraphy, character painting

1.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를 포함한 한자문화권(漢字文化圈)에 속해 있는 중국, 일본, 베트남 등지에서는 한문자(漢文字)를 모체로 하여 자연의 형상을 조형화한 서화적 문자그림이 많이 등장해 왔다. 이러한 문자그림은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일종의 상징물 역할을 담당했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문자그림 가운데 독특한 양식을 가진 것으로 혁화가 있다. 혁화는 중국의 고전 역경(易經)에서 "세상의 움직임을 고무하는 요소가 문장에 있다"고 말하듯이 문자를 귀하게 여기는 예로부터의 가치관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혁화는 민화에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예의 한 분야에도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회화나 디자인 분야에서는 깊이 있고 체계적인 연구나 학문적인 접근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디지털시대의 발전과 함께 한국 내 한자문화가 점차 쇠퇴하면서 그 존재 가치마저 빛이 바래져 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혁필(革筆, Pictorial Calligraphy)이라고 부르는 혁화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18세기 이후에 나타나는 다양한 혁화의 유형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민중이 발전시켜 온 고유한 그래픽 콘텐츠(Graphic Contents)를 창출하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예를 들면, 비백의 역동적인 운필(運筆)을 활용하여 캘리그래피(Calligraphy)나 문양 및 패턴 등으로 응용·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혁화의 독특한 서화적 조형성은 타이포그래피(Typography), 멀티미디어 상에서의 인터랙티브 디자인(Interactive Design), 전통상품의 브랜드 로고타입(Brand Logotype), SP디자인(Sales Promotion Design)분야는 물론 각종 프로모션(Promotion)물 등의 아이덴티티 디자인(Identity Design)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1-2. 연구방법과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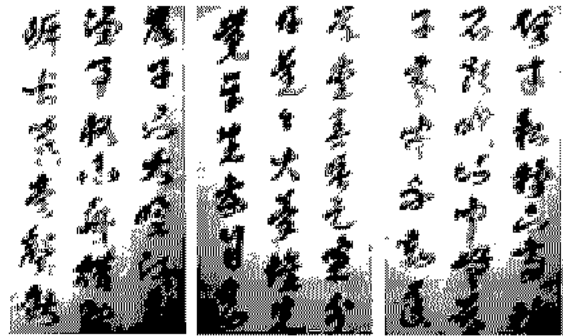
본 연구는 멀리서 조선후기인 18세기 이후부터, 가깝게는 20세기 초반 무렵에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는 혁화 작품을 대상으로 그에 따른 유형과 조형성을 연구한 것이다. 이 연구의 참고 자료로 삼은 혁화 작품들은 대부분 19세기 이후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제작된 것들이다. 특히 그림 자료들은 많은 부분이 개인 소장품으로 지면상에는 처음 공개되는 것들이다. 이론적인 부분은 조선후기인 18세기에 이르러 성행한 민화화, 민화의 한 분야로 다루어지고 있는 문자도의 참고문헌, 직접 수집한 참고자료를 토대로 전개하였다. 그 밖에, 혁필을 제작하는 현장답사와 함께 현재 생존해 있거나 활동 중인 혁필가와와의 인터뷰를 통해 구전으로 전해지고 있는 이야기를 참고로 하였다.

1) 조르주 장 지음, 이종인 옮김: 문자의 역사, 시공사, 58~169 (2002).

2. 혁화의 시대적 변천

2-1. 혁화의 유래와 연원(淵源)

혁화는 조선후기 민화의 한 갈래로 발전한 문자그림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원래 혁화는 중국 한대(漢代) 이후 성행하던 비백서법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는데, 비백서법은 중국 진시황(秦始皇) 시대에 문자 자체의 표준화 정책에 따라 완성된 팔서체(八書體)²⁾중 하나인 조충서(鳥蟲書)³⁾의 영향을 받아 발전한 것이다. 당(唐)의 장희관(張懷瓘)은 서단(書斷)에서 "한나라 영제(靈帝) 희평(熹平, 172~178) 연간에 채옹(蔡邕)이 성황편(聖皇篇)을 지어 황제에게 고하기 위해 홍도문(鴻都文)에 이르렀을 때 마침문을 수리하고 있어 그 문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던 중 장인들이 백토를 바르는 빗자루로 땅바닥에 글자를 쓰고 있는 것에서 영감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 만든 것이 비백서체이다"⁴⁾라고 필획(筆劃) 안에 흰 부분이 남는 비백(飛白, 그림-1)의 특징을 기록하고 있다.



[그림-1] 증이에 먹 6폭 36cmx67cm 개인소장

이러한 비백의 특징에 따라 필획을 살려 빠른 속도로 그리는 속화(速畵) 형식의 혁화는, 조선시대 문인들 여기(餘技)그림의 한 유형을 띤 유평화(柳筆畵)의 일종이기도 하다.⁵⁾

혁화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시기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비백서법이 11세기말(중국 송나라 인종 1022~1063) 무렵 유래했다는 주장이 있으나, 보다 정확한 기록은 조선후기 실학자 유득공(柳得恭, 1749~?)의 경도잡지(京都雜誌) 풍속편(風俗篇)에서 찾을 수 있다. 즉, "비백서는 버드나무 가지를 깎아 그 끝을 갈라지게 한 다음, 먹을 찍어 효(孝), 계(悌), 충(忠), 신(信), 예(禮), 의(義), 염(廉), 치(恥) 등의 글자를 쓴 것이다. 점을 찍고 굵고 파임하고 빼치는 것을 마음대로 하여 물고기, 개, 새우, 제비 등의 모양을 만든다"⁶⁾는 것이다.

2) 팔서체(八書體): 大篆, 小篆, 刻符, 蟲書, 摹印, 書畫, 殳書, 隸書.

3) 조충서(鳥蟲書): 팔서체의 하나로 한문자 필획을 곤충이나 새 모양으로 꾸민 것으로 蟲書, 鳥篆, 鳥書라고도 함.

4) 楊震方 外: 中國書藝80題, 東門選, 31~32, (1997).

5) 윤열수: 민화이야기, 디자인하우스, 290, (1998).

혁화와 관련된 민간의 습속으로는 고대부터 제사를 지낼 때 문자를 통해서 죽은 사람의 영혼이 들어온다고 믿고 계단에 세워놓았던 신위(神位)⁹⁾를 우선적으로 들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의 세시연화(歲時年畫)¹⁰⁾에서 유래한 세화(歲畫)¹¹⁾나 문배(門排)¹²⁾, 입춘에 기둥이나 바람벽에 붙이는 춘첩자(春帖子)¹³⁾나 춘련(春聯)등도 있다.

이러한 세시풍습은 정조연간에 간행된 경도잡지를 비롯해 서 정동유(鄭東愈)의 '주영편', 김매순(金邁淳)의 '열양세시기'(1819), 홍석모(洪錫謨)의 '동국세시기', 이규경(李圭景)의 '오수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와 20세기 초엽 최영년(崔永年)의 '해동죽지'(海東竹枝, 1921), 장지연의 '조선세시기'¹⁴⁾등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혁화에 가장 근접한 양식을 가진 것으로는 입춘을 송축(頌祝)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춘축(春祝)이라고도 부르는 춘련이 있다. 춘련은 지위가 높은 가문이나 민가, 상점 등에서 액을 없애고 복을 부르기 위해 종이에 길상이나 축복의 글귀를 적어서 대문이나 기둥에 붙여놓는 것이다.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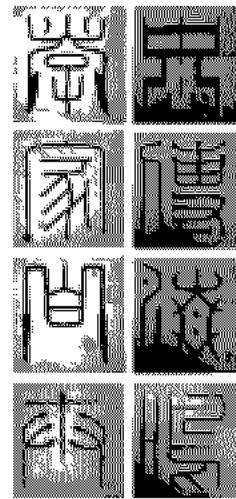
2-2. 혁화의 발전

혁화의 형성 시기인 18세기는 조선사회에서 커다란 변혁기였다. 그 중에 혁화와 관련된 몇 가지 변화를 보면, 첫째 냉해·기근 등 자연재해의 영향으로 등장하는 장시(場市)를 통한 산업의 발전, 둘째로 사설교육기관의 증가, 셋째로 신분구조의 붕괴와 상층민의 증가로 확산되는 서민 의식, 마지막으로 경화세족(京華世族)의 고도서화 수집과 예술품 시장의 형성 등을 들 수 있다. 이같은 경제·사회·문화의 변화에 따라 그동안 상층민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그림 수요가 급팽창하는 민중계층 속으로 확산되었

다. 민중의 그림에 대한 소유 욕구를 배경으로 형성된 혁화는 다양한 계층의 전업 작가들에 의해 제작되던 민화와 더불어 더욱 급속히 퍼져나갔다. 일본인 사학자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悅)는 이 시기를 "예술에 있어서나 습관에 있어서나 또는 문자에 있어서 가장 많은 개성 속에 살 수 있었다"¹⁶⁾고 규정하고 있다.

한걸음 나아가 혁화는 서예의 한 형식이나 민화의 한 유형으로 발전한다. 특히 민화에서는 도교적인 길상문자도나 효제문자도와 함께 주로 병풍이나 족자의 형태로 제작되었다.

<그림-2>는 18세기 조선의 독특한 문자 조형세계를 엿볼 수 있는 작품으로 조선후기의 문신인 이재(李在)¹⁵⁾가 쓴 도교적인 길상문자도이다.



[그림-2] 증어에 먹
27cmx29cm 개인소장

이 길상문자도는 8폭 병풍으로 꾸며졌는데, 다양한 전서체(篆書體)로 쓰여진 충효전가(忠孝傳家)¹⁶⁾ 등 8글자를 문자의 뜻에 어우러지게 한 폭에 한자씩 서화적으로 조형화한 것이다. 이 작품은 독특할 뿐 아니라 독창적이고 새로운 조형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민화의 절정기인 19세기에 들어서면, 중국의 명청대(明清代)에 성행하던 기복적이고 길상적인 작품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길상문양과 더불어 길상 문자 또한 대단히 유행하게 되

는데, 주로 한자문화권에서 유행하던 수(壽) 복(福) 강(康) 령(寧)자와 백수백복(百壽百福), 부귀(富貴), 다남(多男)과 같은 기복문자, 용(龍) 호(虎) 등 벽사 상징문자, 그리고 약화된 왕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 통치의 수단으로 정형화된 효제문자도 등이 그것이다.

이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백수백복도가 있다. 백수백복도는 한자문화권에서 대단히 성행한 것으로 현대 그래픽디자인에서도 놀랄 만큼 다양한 응용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길상문자인 복·수·녹(祿)자를 주로 동물·용·새·그릇·나무·물고기·별자리·곤충 등 당시에 상서롭게

9) 京都雜志 卷1 風俗篇 書畫條, "飛白書, 削柳枝峽其端, 墨寫孝悌忠信禮義廉恥等字, 點波拂隨意作魚蟹蝦燕狀."

7) 조르주 장 지음, 이종인 옮김: 문자의 역사, 시공사, 184, (2002).

8) 세시연화(歲時年畫): 새해를 축하하고 집안으로 들어오는 악귀를 쫓아내기 위해서 새해가 되면 집집마다 대문에 그림을 붙이는 관습이 중국에 있었는데, 그 그림을 세시연화 혹은 연화(年畫)라 한다. 고대 중국의 주술적 관습에서 유래된 것으로, 6세기경에는 연례행사로 정착되고 명·청대에 상당히 유행한다.

9) 세화(歲畫): 중국의 세시연화를 조선에서는 세화라고 했다. 중국의 연화와 조선의 세화는 문배와 같은 용도로 사용되었다. 세화는 고려시대 이색(李穡, 1328~1396)의 세화십장생도찬(歲畫十長生圖讚)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10) 문배(門排): 정월 초하루 설날에 도화서(圖畫署)에서는 금빛 갑옷을 입은 두 장군의 화상을 그려 임금에게 바치고, 이 그림을 대궐문 양쪽에 붙이는데, 이것을 문배(門排)라고 한다. 향간에서는 바람벽에 닭과 호랑이 그림을 붙여 액을 물리친다.

11) 춘첩자(春帖子): 입춘(立春) 때 궁궐에서 문관들에게 '새해의 시(연상시, 延祥詩)'를 지어 올리게 한 후 궁궐 안의 기둥이나 문설주(문틀)에 붙이는 풍습과 작품들. <韓國文化象徵辭典編纂委員會: 韓國文化 상징사전 2, 두산동아, 58, (1995).>

12) 한국고문서학회: 조선시대 생활사-2, 역사비평사, 306-310,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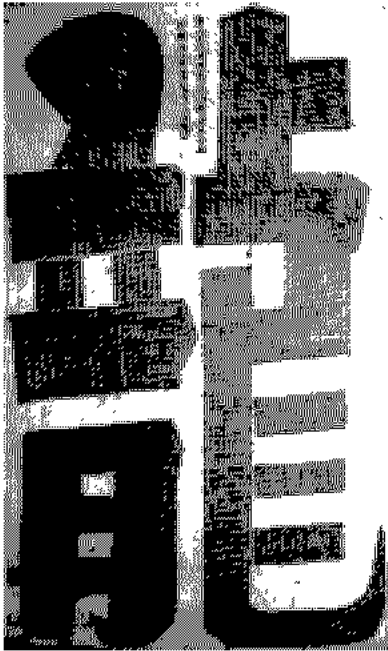
13) 韓國文化象徵辭典編纂委員會: 韓國文化상징사전2, 두산동아, 58, (1995).

14) 야나기 무네요시, 이길진 옮김: 조선과 그 예술, 신구문화사, 152, (1994).

15) 이재(李在): 조선 문신, 본관은 전주(全州), 사천군(四川君) 광(洸)의 손자, 1760년(영조 36) 영천(榮天) 군수(君守)를 지내고 함성부(漢城府) 서윤(庶尹)에 이르렀다. 글씨를 잘 썼으며, 화원악보(花源樂譜)에 시조(時調) 2수가 전한다. <韓國人名大事典編纂室: 韓國人名大事典, 新丘文化社, 714, (1986).>

16) 충효전가(忠孝傳家): 세종이 남긴 글씨로 유일한 忠孝傳家 世守仁敬 중 앞의 4자. 이 글은 90이 넘는 노모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강원도 관찰사 자리를 그만두고 낙향한 이정간(李貞幹)의 효성에 감동한 세종이 직접 그의 집을 찾아가 내린 기훈.

여기던 요소들을 각각 다른 모양으로 변형시킨 전서체, 때에 따라서는 세 문자를 서로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조금씩 바꾸거나 겹쳐서 하나의 유사한 문양 형태로 만든 것이었다.



[그림-3] 종이에 먹 57cmx96cm 개인소장

한편 <그림-3>은 종이 전지 크기에 꼭 차도록 용자를 그린 뒤 그 안에 작은 용자를 반복적으로 써 넣어 벽사의 기원과 염원을 강조한 작품이다. 이와 같이 기복적이고 길상적인 문양들이 성행하게 된 것은 18세기 이후 자주



[그림-4] 종이에 먹 34cmx77cm 개인소장



[그림-5] 종이에 먹 30cmx78cm 개인소장

발생한 전염병이나 극심한 가뭄, 흉수와 같은 재앙에 따른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사회상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조선 초기부터 억제되었던 무교적(巫敎的)이고 토속적인 민간신앙이 급팽창한 상층민과 민중 사이에서 인기를 끌면서 빠르게 퍼져 나갔다. 따라서 무교적이고 주술적인 힘이 강하게 표출되는 혁화는 이러한 배경에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림-4>는 비백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길상의 상징성을 살린 봉(鳳)과 호(虎)자 혁화이며, <그림-5>는 18세기 이후 정형화된 효계문자도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그 기법에서 혁화를 따른 것이다

3. 혁화의 유형

혁화가 담고 있는 내용은 예로부터 동북아시아의 모든 민족을 지배한 강력한 종교로 이해되는¹⁷⁾ 무교적인 신앙을 바탕으로, 청동기시대 암벽화에서 조선시대 공예품에 이르기까지 거의 반만년 동안 끊임없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꽃, 새, 물고기, 짐승, 십장생, 문자나 기하학 문양 등 매우 다양하다. 특히 혁화의 근본을 이루는 기복·길상·벽사 문자들은 문자를 신이 인간에게 내려준 선물로 여기는 고대부터의 믿음과 문자의 주술적인 힘에 의지하던 인간의 염원과 맞물려 오랜 세월 상징적인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혁화는 유행하던 당시에 귀중하게 여겨지지 않아 보관이나 소장 가치치를 갖지 못한 탓에 현재 남아있는 자료 또한 극히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자료의 부족으로 연구에도 다소 어려운 점이 있으나, 조형적 측면과 양식적 측면의 몇 가지 사실을 근거로 해서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효계문자도 혁화, 둘째, 비백 혁화, 셋째, 화문자 혁화가 그것이다.

효계문자도 혁화는 17세기 이후 조선사회의 통치사상에 근간을 둔 효계문자도의 정형을 그대로 혁화로 표현한 것이며, 비백 혁화는 서예의 한 양식으로 발전한 비백서법에 따라 문자를 장식적으로 쓴 것이다. 그리고 화문자(畵文字) 혁화는 자획을 문자의 의미에 맞는 형상으로 꾸미거나 형상 자체가 문자를 대신하는 형태이다.

3-1. 효계문자도 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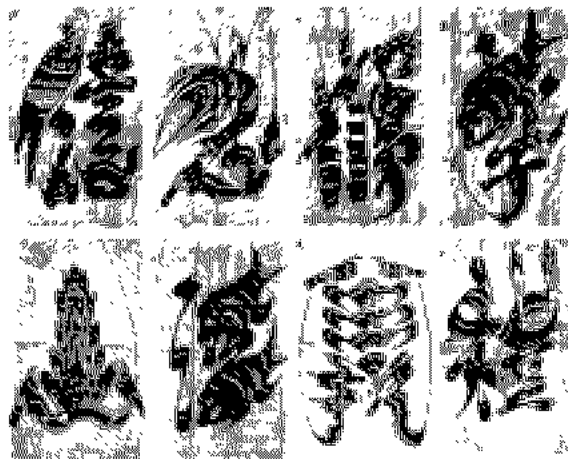
효계문자도는 17세기 후반 호트러진 나라 기강을 세우고 국민을 교화시키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제작하여 널리 보급한 것으로 정형화된 문자도를 일컫는다. 효계충신(孝悌忠信)에 의 염 치의 여덟 글자로 형성된 것으로 효계도(孝悌圖) 혹은 효계충신도(孝悌忠信圖)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

17) 林容淑: 圖像으로서의 무속화와 그 繪畫性, "산국巫神圖" 서을 悅話堂, 39, (1989).

리고 그 여덟 글자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긴 세월동안 한민족의 전통사회를 지탱해 준 윤리관이자 당시 지배계층이 통치목적으로 강조한 삼강오륜(三綱五倫)¹⁸⁾의 유교적 도덕관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유교적 도덕관은 이미 신라 때 설총(薛聰)이 지은 시, “仁心은 터이 되고 효계충신 기둥되야, 예의엄치로 가족이 에워쓰니, 千萬年 風雨를 만난들 기을 줄이 있으리.”¹⁹⁾에서도 나타나 있을 정도로 우리 민족의 보편적 정서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내용과 표현은 국민적 교화를 위해 편찬한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 1431년, 세종 13년)와 18세기 영정조대(英正組代, 1750년~1800년)에 왕권의 안정을 모색하고 신분의 위계질서를 바로 잡으려고 간행한 이륜행실도(二倫行實圖)²⁰⁾, 오륜행실도(五倫行實圖, 1797년, 정조 21년)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효계문자도가 화려하고 정연하게 제작된 것에 비해 효계문자도 혁화는 보다 자유롭게 그려졌다. 단순히 종이에 먹으로 그린 것이 대부분인데, 조형 표현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된다. 그 하나는 <그림-5>에서 볼 수 있듯이 효계문자도의 정형을 그대로 본떠서 혁화로 묘사한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그림-6>처럼 효계문자도의 정형에서 완전히 벗어나 글자만을 도판처럼 간결하고 담백하게 쓴 것이 있다.



[그림-6] 종이에 먹 48cmx82cm 개인소장

<그림-6>은 8자가 나란히 있어 효계문자도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으나, 효, 충, 신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문가가

18) 삼강오륜(三綱五倫): 삼강은 충(忠)·효(孝)·정(貞)을 지칭하고, 오륜은 유교에서 말하는 다섯 가지의 인륜(人倫)으로 군신의 의(義), 부자의 친(親), 부부의 별(別), 장유의 서(序), 봉우(朋友)의 신(信)을 뜻한다.

19) 金哲淳: 韓國民書論考, 藝耕産業社, 215, (1991).

20) 이륜행실도(二倫行實圖, 1730년, 영조 6년): 조선시대에 목판본으로 만든 일종의 윤리 교육서. 장유(長幼)와 봉우(朋友)의 이륜(二倫)을 지키도록 중국 고대 설화에서 모범이 되는 사람들을 뽑아 그 행적을 엮은 것으로 책머리에는 이륜행실도서(二倫行實圖序)가 있다. 매장 안면에는 그림을 그리고 뒷면에는 한문해설과 찬양하는 시를 기재했다. 후에 필사한 한글번역이 그림마다 뒷부분 여백에 기록되어 있다.

아닌 이상 도저히 무슨 도상인지 알아 볼 수가 없다. 나머지 하나는 혁화에 나타나는 독특한 형태의 효계문자도로 대나무의 느낌으로 대표적인 상징물을 꾸미고 있다. 특히 대나무는 당시 정통회화에서 유행하던 사군자(四君子)의 한 소재일 뿐만 아니라, 혁화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소재이기도 하다.

그 이유는 대나무가 항상 푸름을 간직하고 있으며, 번식력이 강해 영생과 불변을 상징하는 소나무와 비견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또, 신을 부르거나 내리게 하는 신대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신화적 상징성으로 유추되기도 한다. 민간에서는 정월 초하루에 대를 태워 잡귀를 쫓고 복을 구하는 축귀초복(逐鬼招福) 행사 때 대나무를 사용하기도 하였다.²¹⁾ 이는 중국이나 일본 등 한자문화권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독창적인 양식이다.

3-2. 비백 혁화

비백 혁화는 효계문자도 혁화에서 다루는 여덟 글자 이외에, 당시 유교적 생활이념으로 삼았던 사자성어(四字成語, 예: 그림-7)나 고사성어(故事成語)와 봉 용 호 구(龜)와 같은 길상적이거나 벽사적인 의미를 가진 한문자를 비백기법을 사용하여 서화적으로 쓴 것(그림-4)을 말한다.



[그림-7] 종이에 먹 940cmx30cm 개인소장

이러한 형태의 비백 혁화는 <그림-8>과 같이 사자성어의 글귀를 단순히 먹을 사용하여 쓴 것으로 한문자의 기본 형태를 유지하면서 자획은 변형시키지 않고 있다. 채색에서도 먹만을 사용하여 제작한 것과 한 글자 안에 다양한 색채를 사용하여 꾸민 것도 있다.

<그림-9>는 글자의 획마다 다른 색을 사용하여 화려한 느낌을 가질 뿐 아니라 효계문자도 혁화에서 다루는 충자와 효자를 비백 기법으로 재구성하여 표현하고 있다.

비백 혁화는 조선초기부터 행해져 온 춘련의 대련과 단첩에서 발전하여 형성된 것으로, 주로 짝을 이루어 4폭, 6폭, 8폭의 서예풍 병풍으로 만들거나 서화병풍의 뒷부분을 꾸미는데 사용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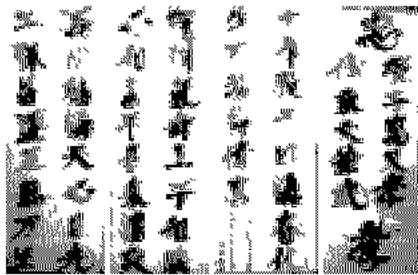
비백 혁화에서는 다른 혁화에서는 볼 수 없는 지역적 특성이 미미하게나마 나타나고 있다. <그림-10>은 제주도의 한 가정에서 보관하고 있던 8폭 병풍이다. 이 작품에는 문자의 전체 모양을 형성하고 있는 어선의 뜻이나 해안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물고기, 돛단배, 새 등으로 어촌 마을의 정취가 드러나 있다. 이러한 정취는 조선후기 다른 민

21) 한국문화상징사전편찬위원회: 韓國文化상징사전 1, 두산동아, 203~207, (1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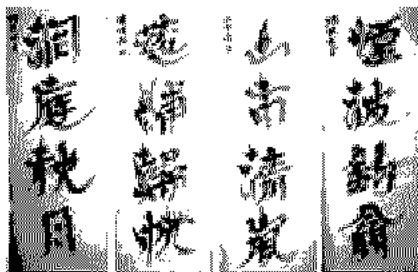
화 형식에서도 많이 찾아 볼 수 있는 것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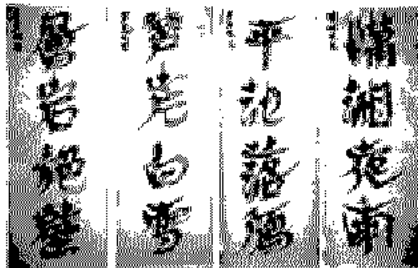
[그림-8] 종이에 먹 8폭 28cmx78cm 개인소장



[그림-9] 종이에 채색 4폭 40cmx107cm 개인소장



[그림-10] 종이에 먹 8폭 30cmx80cm 개인소장



3-3. 화문자 혁화

화문자 혁화는 일러스트레이션(illustration)의 요소가 두드러진다. 조형 표현의 중심이 서(書)가 아니라 화(畫)가 되어 문자가 가지고 있는 뜻 그대로를 가능한 한 동일하게 시각화하고, 그 도상 자체가 문자를 대신하는 형식이다. 즉 그림만으로 그 문자의 뜻이 통할 수 있도록 형상화 한 것인데, 송(松)은 소나무, 매(梅)는 매화나무, 죽(竹)은 대나무, 구는 거북이, 봉은 봉황, 학(鶴)과 청(靑)은 늙지 않고 백년해로(百年偕老)하는 학 등의 조형 형태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효제문자 혁화와 비백 혁화에서 제외된 대부분의 혁화는 여기에 포함된다.

화문자 혁화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일련의 문자나 형상들은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주술적인 토착 신앙의 형태로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었던 것들이다. 예를 들면 재액 예방, 건강, 사랑, 부귀, 장수 등을 상징하는 물고기(魚), 방위 수호신의 하나인 백호(白虎), 산신(山神)과 산신의 사자(使者)를 상징하는 호랑이(虎), 앞날의 일을 미리 점쳐

알려 주는 예조(豫兆), 장생과 길상의 신수(愼獸)인 거북이, 벽사와 기복(祈福)의 선신(善神)으로 섬겨지는 용, 영혼, 사랑, 행복, 기쁨을 상징하는 나비, 길흉화복의 안내자이자 수호신을 상징하는 새²²⁾와 십장생에 포함되는 소나무(松), 두루미(鶴), 해(日), 달(月) 등등이 그것이다.



[그림-11] 종이에 먹 40cmx109cm 개인소장

이러한 길상(吉祥), 초복(招福), 벽사(辟邪), 장생(長生)과 관련된 문자나 문양은 조선 후기 민화에서 대체로 선호하는 소재였으며, 특히 효제문자도의 여덟 글자와 복수 녹용 호와 같은 길상문

자는 문자도와 더불어 혁화의 유행을 촉진시키는 기폭제가 되기도 하였다. <그림-11>은 '송죽매(松竹梅)'와 '학귀무(鶴龜舞)'의 글귀를 서화적으로 쓴 것이다. 이 글귀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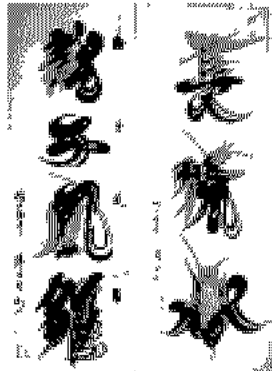
[그림-12] 종이에 먹 33cmx54cm 개인소장

22) 한국문화상징사전편찬위원회: 韓國文化상징사전 1, 두산동아, 38~490, (1992).

소나무의 솔잎, 뗏가지와 뗏잎, 매화꽃 가지, 그리고 두루미, 거북이, 춤추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림-12>는 풍(楓)과 국(菊)자를 각 한 폭씩 그린 것이다. 풍자에는 단풍나무, 국자에는 국화꽃을 그려서 솔향기와 국화꽃 향기를 따라 날아드는 나비의 모양을 그려 넣었다. <그림-13>은 월(月)자를 토끼가 월계수(月桂樹) 아래에서 방아를 찧고 있는 월상도(月象圖)의 형태로 일러스트레이션 요소를 더한 것이다. <그림-14>는 장류수(長流水)와 만수산(萬壽山)이라는 글귀를 비백기법으로 쓴 것이다.



[그림-13] 종이에 먹 18cmx26cm 개인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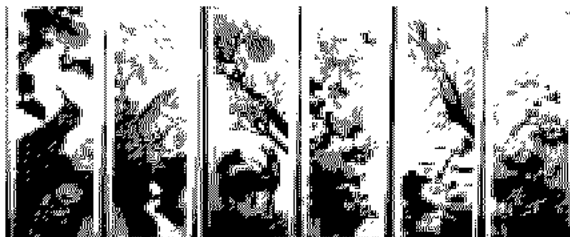


[그림-14] 종이에 먹 18cmx26cm 개인소장

4. 혁필화

4-1. 혁화의 혁필화

19세기말 봉건사회의 해체와 서구문화의 영향으로 조선 전통의 민예(民藝)는 점차 쇠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더욱이 20세기 초 일제의 문화말살정책과 산업화 초기과정을 거치면서 그 자취는 점차 사라져간다. 이러한 변화들은 도화서의 화원이나 화공, 화장에 의해 그려졌던 민화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쳐, 결국 대량생산되는 인쇄물 <그림-15>에 그 자리를 내주게 된다.



[그림-15] 인쇄물

혁화의 경우에도 20세기 초까지 대개 종이에 먹을 사용하여 다양한 형식과 운필로 그리던 것이 시간이 흐를수록 먹 대신 알록달록한 염색용 물감이나 페인트로 그리는 작

위적인 혁필화로 변한다.

혁필화는 오늘날 혁화와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취급되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혁화는 17세기 말 이후 효계 문자도가 나오는 시기부터 이미 서화의 한 형태로 존재했던 것이었으므로 20세기 초 중국에서 들어온 근대의 혁필화와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혁필화가 승가(僧家)에서 전래된 화풍을 이어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으나 대부분 중국을 왕래하며 당시 중국에서 유행하던 그림을 배워오거나, 우리나라에 거주하던 화교(華僑)를 통해서 익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오늘날에도 중국의 만리장성이나 기타 관광지 등에서 볼 수 있는 호랑이 용 학 대나무 등을 그린 혁필화들이 1960년대 후반까지 제작되었던 우리나라의 혁필화와 거의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 이후부터 혁필화의 맥도 거의 끊기고 있다. 몇 사람에게 의해 전승되고 있는 이름이나 가훈, 사자성어 등을 쓴 일부 작품들도, 그 형상은 과거 혁필화에 비해 기교나 양식이 크게 못 미칠 뿐 아니라 다소 유치한 형태로 변형된 것들이다.

따라서 조선 후기 이후 직업으로 그린 화공이나 화장들이 오랜 기간 익혀 완성된 숙련도로 나타내는 아름답고 거침없는 운필로 이루어낸 혁화는 달리, 외적으로는 화려하게 보여도 기계적인 단순함과 번잡스러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혁필화라고 할 것이다.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의 혁필화를 꽃에 비유해 화문자(花文字)라고 부르는 이유도 색상은 꽃처럼 화려하나 형태에서 운필의 강한 힘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한다.

4-2. 혁필화의 형성

혁필화는 1970년대를 전후로 해서 다소 다른 형태를 보인다. 1970년 이전까지는 중국의 혁필화 양식을 익힌 사람들에게 의해 그 형식이 나름대로 유지되고 있었으나, 그 이후부터는 새로 등장한 혁필가²³⁾들에 의해 점차 볼품없는 장터 그림으로 전락한다.

이러한 배경에는 한반도의 분단과 중국의 공산화로 더 이상 중국과 더불어 혁필화를 발전시킬 수 없었고, 그 후 자생적으로 맥을 유지하던 혁필가들도 1960년대를 기점으로 하나 둘씩 사라져갔기 때문이다. 과거 혁필가들로부터 개인적으로 터득하여 새롭게 등장한 혁필가들은 생계 수단으로 시골 장터나 행사장, 미군 주둔지나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거리, 공원, 관광지, 드물게는 학생들의 소풍 장소 등에서 활동하기 시작한다.

이때의 혁필은 양모나 합성 섬유로 된 증절모의 일부분을

23) 홍지성(?~1995, 1974~1992년까지 한국민속촌 근무)을 중심으로 정홍주(한국민속촌), 박석두, 이강재(롯데월드민속촌), 박재창, 채용현, 강원주(인사동), 이종욱(종로), 정해채, 정찬필(이태원), 성남과 경기도, 전주와 이리, 강릉 단오제, 진해 군항제, 부산, 충청도 등지에서 활동하는 전업작가와 그밖에 해외에서 활동하는 이상재(미국 산타모니카) 등 소수의 작가가 있음.

넓죽하게 잘라서 가공하고, 각자의 비법으로 조제했다는 염료나 화학성분의 물감을 찍어 사용했다. 그림 소재는 몇 가지 없었으며, 고객이 원하는 대로 이름이나 고사성어, 사자성어를 써 주면서 재치 있는 입담으로 뜻풀이까지 곁들여, 족석에서 작품을 만들어 냈다.

이 같은 혁필화는 88올림픽과 2002년 한일월드컵 기간 중에 잠깐 주목을 끌다가 그 이후로는 급격하게 그 수요가 위축되고 있다. 현재는 주로 외국관광객, 재외교포, 해외 입양아들이 기념품으로 구매해가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주 수요층인 일본 단체관광객들은 자신의 이름이나 선호하는 사자성어 글귀²⁴⁾를, 서구 관광객들은 자신의 이름과 간단한 단어나 문장²⁵⁾들을 주로 주문한다.

그리고 이러한 혁필화를 전업으로 삼고 활동하는 작가들 또한 국내뿐 아니라 해외 활동도 점차 위축되어가고 있다. 과거의 외국의 이벤트사와 계약을 맺고 일정기간 일본, 유럽,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사이판, 괌, 동남아 화교 지역, 오세아니아 등지의 백화점과 관광지에서 활동하던 혁필가들도 각국의 정서에 맞게 혁필을 구사하는 경쟁자들과 새롭게 등장하는 자국민들에 의해 활동 무대를 점차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5. 결론

다가오는 21세기는 문화콘텐츠 시대로 세계와 겨룰 수 있는 우리 고유의 정체성 있는 콘텐츠를 확보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일체의 문화말살정책과 6·25전쟁 등 역사적 변천에 의해 단절되거나 변질되었던 전통문화의 가치관에 대해 재조명해야 할 것이다.

과거의 전통이나 역사를 조사, 분류, 해석, 정리하는 작업은 단순히 과거를 정리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과거의 전통과 역사를 돌이켜 보면서 긍정적인 것은 계승 발전시키고 부정적인 것은 배제 보완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조선후기 사회 변화에 따라 새로이 발전한 문자를 소재로 한 혁화의 경우 회화와 디자인 분야의 한 갈래로 새로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 전래된 양식인 혁화를 우리 조상들은 전통 민화의 한 갈래로 형성·발전시켜 왔으나, 최근에는 해방 이후 시골 장터에서 생계수단의 한 방편으로 족석에서 그려 팔던 혁필화와 혼동되어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

이와 달리 현대 중국에서는 전통적인 혁화가 여전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통문화의 한 형태로 오늘날까지 일반 가정이나 상점에 문배 풍습으로 남아있다.

24) 家內安全, 無病息災, 健康第一, 健康長壽, 開運幸福, 學業成就, 交通安全, 一心努力, 飛龍登天, 萬事大通, 必勝不敗, 所願成就, 良緣成就, 事業達成, 魚變成龍, 健康長壽 등.

25) Welcome, Sweet Home, Korea, We Love You 등.

또한 일본에서도 17세기 일본 민화를 대표하는 오쓰에(大津繪)²⁶⁾가 현재까지 일본을 상징하는 문화상품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는 17세기 신흥도시로 경제적 번영을 누리고 있던 에도(江戸)를 중심으로 발전하여 판화 형태로 대량생산되었던 우키요에(淨世繪)가 유럽의 예술 전반에 미친 영향을 들 수 있다. 19세기 중엽 이후 수요가 줄어 가치를 잃은 우키요에 작품들을 당시 유럽으로 수출하는 칠기나 도자기, 일상용품 등의 포장 재료로 사용하여 유럽 지역에서 일본 문화의 열풍을 일으키고, 그 이후 형성된 새로운 회화 및 그래픽디자인 역사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따라서 좀 낮은 감은 있으나 혁화를 단순히 한문자를 그림으로 쓰는 물리적 행위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연상적인 시각 언어이면서 상징적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 인식을 새롭게 하여 우리 고유의 문화콘텐츠의 하나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26) 아나기 무네오시, 이길진 옮김: 조선과 그 예술, 신구문화사, 320, (1994). 오쓰에: 에도시대 오쓰(大津) 지방에서 성행하던 토속화(土俗畫), 회화(戲畫)로 다소 거친 증이에 단순화 시킨 형태의 그림을 먹에 호분(胡粉)등을 착색시킴.

참고문헌

- 金哲淳, 韓國民畫論考, 예경산업사, 1991.
- 도립 전라남도 목과미술관, 남도민화도록, 2000.
- 呂勝中, 意匠文字-龍, 鳳, 卷, 中國青年出版社, 2001.
- 桑山彌三郎 編, 世界の 繪文字, 柏書房, 1984.
- 張道一, 美哉漢字, 漢聲雜誌社, 1996(傳統民間美術字)
- 金鎬然, “호제도”, 空間, 1972.
- 林良一, 東洋美術의 裝飾文樣, 同朋舍, 1992.
- 楊震方 外, 中國書藝80題, 東門選, 31-32, 1997.
- 윤영수, 민화이야기, 디자인하우스, 1998.
- 유홍준, 문자도, 대원사, 1993.
- 京都雜志 卷1 風俗篇 書畫條.
- 조르주 장 지움, 이중인 율길, 문자의 역사, 시공사, 2002.
- 東아시아의 民間畫 미술사논단 9, 田所政江, 시공사, 1999.
- 한국고문서학회, 조선시대 생활사-2, 역사비평사, 2000.
- 공상철 외, 중국, 중국인, 그리고 중국문화, 다락원, 2002.
- 야나기 무네요시, 이길진 율길, 조선과 그 예술, 신구문화사, 1994.
- 韓國人名大事典編纂室, 韓國人名大事典, 新丘文化社, 1986.
- 朴容淑, 圓像으로서의 무속화와 그 繪畫性, "한국巫神圖", 悅話堂, 1989.
- 남경, 소주도화오목판연화, 강소고적출판사, 1991.
- 金哲淳, 韓國民畫論考, 藝耕産業社, 1991.
- 한국문화상징사전편찬위원회, 韓國文化상징사전 1, 두산동아, 1992.
- 한국문화상징사전편찬위원회, 한국문화상징사전 2, 두산동아, 1995.
- 신광수 申光洙, '최북설강도가 崔北雪江圖歌', '崇文聯芳集', 탐구당, 1975.
- 강명관, 조선시대 문학예술의 생성 공간, 소명출판 somyong, 1999.
- 남공철 南公轍, '崔七七傳', 김룡집 金陵集집 13권.
- 오주연문장전산고 五州衍文長箋散稿, 제병즉속화변증설題屏 箋俗畫辨證說, 李圭景.
- 강원도 고미술연구회, 강원도의 古書畫, 曹永復, 1997.
- 야나기 무네요시, 이길진 율길, 조선과 그 예술, 신구문화사, 1994.